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의 연령이 남자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남 미 우 · 강 혜 원

연세대학교 의생활학과

The Effect of Contexts, Clothing Cues and Perceiver's Age on Male Impressions.

Mi Woo Nam · HeWon Kah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ersity

(1993. 12. 20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1) the effect of two contexts (job interview, informal outing) and clothing cues (type, style, color) on male impressions 2) the effect of perceiver's age on male impressions created by the clothing cues and contexts.

The subjects consisted of 256 male undergraduate students and 256 middle-aged men. The experimental materials developed for this study were a set of stimuli and response scales. The stimuli were 8 color photographs of drawings of a male figure in clothing which were manipulated in two levels, each of three clothing cues including type, style and color. The experimental design was full factorial design of $2^1(\text{context}^2 \times \text{clothing type}^2 \times \text{clothing style}^2 \times \text{clothing color}^2)$. Each of the 16 sub-samples includes 16 subjects from the two perceiver group. Questionnaires used to measure perceivers responses to the stimuli were 7-point semantic differential scales composed of 37 bipolar adjectives representing personal traits.

The data was processed by factor analysis, ANOVA,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e major findings drawn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ree factors emerged to account for the dimensional structure of the impressions of the male figure in clothing in two social situations. These factors involved evaluation, activity and uniqueness.
2. The contexts, clothing types and clothing styl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evaluation, activity and uniqueness. The clothing styles had a considerable effect on both evaluation and uniqueness while the clothing types affected activity. The clothing color had least effect on the impression and had only moderate effect on evaluation.
3. Perceiver's age influenced impressions formed by the social contexts and clothing cues. Male college students were least affected by contexts and clothing cues, while middle-aged men were affected most.

In summary, clothing worn by a stimulus person together with social contexts, affected the impression given by him, from which dispositional inferences were made and the effect of contexts and clothing cues on impression formation varied according to perceivers age.

I. 서 론

의복은 착용자의 무언의 상징이며 또한 의복착용행위는 착용자를 원인제공자(causal agents)로서 지각하고, 그의 의도 감정상태뿐만아니라 지속적인 기질이나 성격특성을 추론할 수 있게한다.¹⁾ 이때 의복의 상징적인 의미는 상황과 상호작용하여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한 개인이 타인의 성격특성을 지각함에 있어서는 주어진 여러 의복단서중에 어떤단서를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의복은 대인지각에 중요한 비언어적 단서로 대인지각 과정에서 의복이 전달하는 의미는 관찰자특성 및 지각되는 사회적상황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된다. 그러나 의복, 상황, 관찰자변인이 매우 다양하고 통제가 어려워 이들 요인들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오지 않았다.

한편 남자들 사이에서 의복은 사회적지위나 직업내성취의 중요한 지침이며 목표달성의 수단으로 사용되나²⁾ 국내외를 막론하고 남성의복에 관한 연구는 거의 시도되고 있지않다. 따라서 의복단서의 의미전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남성의복을 대상으로한 연구도 필요하다.

남성의복은 근대의 남성복형태가 정착된 이후로 형태변화가 거의없고 착용되는 의복유형도 제한되어 뚜렷한 의복규범이 있었으나 최근의 생활양식과 성역할행동등의 변화는 남성의복에도 변화를 가져와 활동적이면서도 색상과 디자인이 다양한 의복의 착용이 보편화되는 현상을 볼수있다. 따라서 현재의 남성복 변화에 대한 연구는 남성의복의 규범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인지각에 있어서 의복의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남자의복을 대상으로하여 상황·의복·관찰자변인을 구체적으로 조작하여 이들 변인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하며, 또한 보다 현실적인 인상형성상황으로 조작·연구함으

로써 남성들에게 의복을 통한 인상관리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1) 상황과 의복단서가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2) 상황과 의복단서에 의한 인상형성에 있어서 관찰자의 연령의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대인지각이론, 의복과 대인지각에 관한 문헌을 포함하였다.

1. 대인지각 이론

지각(perception)이란 인간이 환경속에서 주어진 자극들을 받아들여 조직화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말하며³⁾ 대인지각이란 타인의 심리적소질에 관한 모든것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⁴⁾.

대인지각 이론중 본 논문에 관계되는 형태주의적 접근인 인상형성이론, 내현성격이론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1) 인상형성 이론

인상형성과정에 관한 연구의 핵심은 타인에 대해 제시되는 단편적인 여러정보들이 어떻게 하나로 묶여져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으로 통합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형태주의적 접근(Gestalt Theory)의 대표적인 학자인 Asch(1946)⁵⁾는 지각대상자를 묘사하는 자극특성들 중 인상형성에 중요역할을 하는 중심특성과 주변특성이 있으나 모든 자극특성들은 맥락 즉 다른 특성과의 관련성에 의해 최종적인 인상이 형성된다고 했다. 즉 형태주의 이론은 인상형성시 개인이 독립적으로 주어지는 각기 다른 정보들을 조직화시켜 하나의 의미있는 전체 형태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⁶⁾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합이 아님을 강조한다.

2) 내현성격이론

내현성격이론(Implicit Personality Theory) 체계는 Asch의 영향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방향의 하나로 이 이론은 인간이 내부에 지닌 특성들간에는 상호연관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지각자는 이러한 연관성을 자신 또는 타인의 행동으로 일반화시킴으로써 지각대상자가 행동할 당시에는 직접 나타내지 않는 다른 특성들까지도 추리한다고 설명한다⁷⁾. 이는 성격특성간의 관계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체제로 볼수있으며⁸⁾ 지각자들은 일련의 지각된 특성들과 그 관계에 대한 개념에 따라 제한된 지식에 기초하여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신속히 할 수 있다.

2. 의복과 대인지각

의복을 통한 대인지각은 학습되어 온 의복의 상징에 영향을 받으며 응답자의 과거경험에 달려있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지각대상변인, 지각자변인, 상황변인의 3개 범주로 분류하여 요약하였고 의복착용자가 주는 인상의 차원을 살펴보았다.

1) 지각대상변인의 영향

지각대상변인이란 피지각자 변인에 해당되며 지각대상의 의복유형, 형태, 색상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것을 포함한다.

의복유형의 영향 : 의복착용자의 인상은 착용한 의복유형에 따라 태도, 가치관⁹⁾, 및 성격특성¹⁰⁾이 다르게 지각되었다. 여성 정장 스커트 착용자는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이며 여성적이고 매력적 바람직한 것으로 지각되었고¹¹⁾ 남성 정장착용자는 매력적이며 지적이고 인기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¹²⁾.

한편 청소년 캐주얼 착용자는 긍정적인 평가 및 성격특성의 판단을 받았고¹³⁾ 또한 활동적인(sporty) 의복의 여자착용자는 격식차리지 않고 사회성이 있는 것으로¹⁴⁾ 믿을 수 있으며 타인을 이해하는 사람¹⁵⁾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남자 캐주얼 착용자는 매력적이거나 지적이지 않지만 매우 인기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¹²⁾.

의복형태의 영향 : 의복단서의 형태를 유행성차린(fashionable-basic)으로 조작하여 자극물로 사용한 연구는 드물게 진행되었다. Paek¹⁵⁾의 연구에서 보수적인 의

복은 진실하고 신뢰성있는 인상을 주었고 또한 인습적이며 격식차린 인상을 주었다¹⁴⁾. 몸의 선이 드러나지 않는 점잖은 의복은 지각자에게 호감과 친절 및 따뜻한 인상을 주며¹⁶⁾ 한편 보수적인 남자의복은 매력적이고 지적이나 인기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¹²⁾.

유행을 따르는 옷차림은 사교적이며 인기있고 성적매력이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옷차림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Conner¹⁷⁾의 연구에서 유행하는 의복을 착용한 자극물은 유행이 지난 의복을 착용한 경우 보다 더욱 사교적으로 지각되었다. 대담한 유행의복 착용자도 매력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사람으로 지각되었으나 한편 신뢰성이 없고 성실하지 못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¹⁵⁾. 또한 Thurston과 Lennon¹⁸⁾의 연구결과에서 최신유행 의복착용자는 보수적인 의복착용자보다 전문적 이미지를 약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의복색상의 영향 : 의복의 색상은 의복착용자의 표면효과(surface effect)로서 지각되어 착용자의 모습을 배경으로부터 전경으로 분리시키거나 신체표면을 하나로 통합 또는 몇개의 표면들로 구분하여 지각하게 한다.

의복의 색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색의 명도, 또는 채도 지각자의 선호색, 색조화의 어울림등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으나 의복색상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에서는 의복색상의 영향은 작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의복착용자에 관한 호감평가에 의복색의 명도는 체계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고 의복유형은 체계적이고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¹⁹⁾. 또한 여자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가장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의길이이고 다음이 색상이며²⁰⁾, 정숙성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서도 다리노출이며 수트의 색상은 지각자에 따라 영향력이 다르게 평가되었다²¹⁾.

2) 지각자 변인의 영향

대인지각은 지각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독특하게 지각되는데 이는 지각자에 따라 판단기준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각자변인은 대인지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의복행동분야에서 이에 관한 연구는 적다.

고애란²¹⁾의 연구에서는 의복의 정숙성에 대한 인상형성시 정숙성 조작변인에 의해 영향받는 정도가 지각자의 성·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

남자집단에서는 대학생보다 40대가 영향을 좀 더 받았으나 여자집단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한편 성별에 따른 차이로는 대학생에서는 여자, 40대에서는 남자가 좀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인지각에 있어 연령의 차이는 청소년 후기부터 중년기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²²⁾.

3) 상황적변인의 영향

지각이 일어나는 사회적 상황 또는 맥락을 상황적 변인이라고 하며 지각대상의 지각적 특출성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의복을 통한 인상형성에 상황적 변인을 포함한 연구들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그중 하나는 인상형성시 의복단서의 의미가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규명하려는 연구와 다른 하나는 의복이 상황적 적절성과 관련될 때 지각대상자의 능력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이다.

Damhorst²³⁾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맥락내에서 의복단서가 갖게되는 의미에 관한 연구에서 정장 또는 약식복장을 한 남녀회사원이 직장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장면을 담은 그림자극물을 지각자들(남·녀회사원)에게 제시한 후 그림속의 인물에 대하여 자유응답하도록 한 결과 정식복장의 착용자는 약식복장의 착용자보다 더 많은 관리직 역할과 더 높은 지위를 받은 사람 더 활동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강혜원·이주현²⁴⁾은 4개의 의복유형(정식, 약식의 한복 및 양복)과 3개의 사회적 상황(학교, 직장, 모호한 상황)을 독립변인으로 조작하고 이를 남·녀 의복착용자에게 각각 적용시킨 자극물을 지각자에게 제시한 후 의복착용자의 인상을 의미비분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상황은 의복유형보다 인상에 적은 영향을 미쳤다. 여자 의복착용자는 학교상황에서는 보다 능력있는 사람으로 직장상황에서는 보다 품위있는 사람으로 지각되었으며 남자 의복착용자는 학교를 배경으로 할 때 더 검소한 사람으로 여자지각자가 응답했다.

4) 의복착용자가 주는 인상의 차원

Damhorst²⁵⁾는 의복과 대인지각에 관한 109개의 선행 연구들을 내용분석한 결과 97개의 연구에서 의복은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인상형성의 주류를 이루는 4개 범주중 평가(evaluation), 역능(potency), 활동성(activity) 등은 Osgood, Suci, Tannenbaum²⁶⁾의 의미비분요인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이중 역능은 의복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결과가 가장 많이 나

타난 범주이다.

Delong과 Lantz²⁷⁾, 박혜선²⁸⁾은 자극물을 제시하고 의미비분법을 사용하여 의복착용자의 인상을 연구한 결과에서 평가 활동성 역능 기타요인이 발견되었으며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것은 평가요인이었다.

개인은 타인을 판단할때 자신의 자아개념에서 중요한 범주 또는 차원을 기초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²⁹⁾. 남자들은 능력이나 활동성에 더 주의를 집중하는 반면 여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그들 자신의 감정에 더 관련하여 타인을 평가한다³⁰⁾.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가설 및 용어정의

본 연구는 연구문제의 규명을 위해 준 실험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연구의 가설 및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가설

가설 1 : 상황과 의복단서는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칠것이다.

가설 2 : 응답자의 연령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칠것이다.

2) 용어정의

자극물 : 본 연구의 독립변인 중 의복단서(유형, 형태, 색상)를 두 수준으로 조작시킨 의복을 착용한 20대 남자모습의 칼라 그림 사진이다.

상황 : 의복착용자와 함께 제시되는 맥락(context)을 의미하며 직장 면접시험 상황과 주말의 가벼운 외출(영화관람)상황으로 구분된다.

의복단서 : 의복의 여러 측면들을 의미하며 의복의 유형, 의복의 형태 및 의복의 색상등을 포함한다.

의복유형 : 남성의복을 격식차림 정도로 크게 두가지로 분류한 것을 의미하며 사무복 정장(suit), jumper차림의 캐주얼로 구분된다.

의복형태 : 선, 실루엣 디테일 스케일등을 포함한 의복의 전체형태를 의미한다. 두가지 수준의 유행성 차원으로 조작하여 유행형(fashionable style)과 기본형(basic style)으로 구분된다.

의복색상 : 의복색을 유행성차원으로 조작하여 유행색(fashionable color)과 기본색(basic color)으로 구분된다.

응답자 : 본 연구의 피험자로서 의복착용자(자극물)로부터 받은 인상을 설문지에 응답하는 사람이다. 때로는 지각자, 관찰자로도 지칭함.

인상 : 응답자가 자극물속의 의복착용자로부터 받은 인상을 의미하며 의복착용자의 인상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인상의 요인 : 응답자가 의복착용자로부터 받은 인상의 의미미분척도에 대한 응답을 요인분석한 결과에서도 출된 요인들을 의미하며 인상요인 또는 요인으로도 지칭한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인상을 제시하는 자극물, 이 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로 구성되었다.

1) 자극물

본 연구의 자극물은 20대 남자 의복착용자의 그림사진 (5×7in) 총 8가지이며 조작된 의복단서는 의복유형, 형태, 색상으로 각기 두 수준으로 조작되었다. 각 자극물 번호에 따른 의복단서변인의 조작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각 자극물의 의복단서 조작내용

자극물번호	의복단서 조작내용					
	의복유형		의복형태(S)		의복색상(C)	
	정장(S)	캐주얼(J)	유행형(F)	기본형(B)	유행색(F)	기본색(B)
S S _F C _F	V		V		V	
S S _F C _B	V		V			V
S S _B C _F	V			V	V	
S S _B C _B	V			V		V
J S _F C _F		V	V		V	
J S _F C _B		V	V			V
J S _B C _F		V		V	V	
J S _B C _B		V		V		V

의복유형 : S(suit), J(jumper차림)
 의복형태 : S(style)
 의복색상 : C(color)
 F, B : 자극물의 유행성 차원의 조작 수준 F(fashionable), B(basic)

자극물 제작은 문헌조사와 유행경향조사(국·내외 잡지 및 카타로그)로부터 1차 전문가집단(남성복 디자이너5명)의 평가를 거쳐 유행을 따르는 것과 유행을 따르지 않는 형태를 각 의복유형(정장/캐주얼)별로 1개씩 선정한 후 2차 전문가 집단(남성복 디자이너 13명)에게 유행성정도를 검토받아 여러번의 수정끝에 의복유형과 형태가 각기 두가지로 조작된 4개 자극물이 제작되었다.

유행형 정장은 더블브레스트(double breasted)이며, 기본형 정장은 싱글브레스트(single breasted)로 기본적인 테일러드형이다. 캐주얼의 유행형 점퍼(jumper)는 칼라가 없고 어깨가 둥글며 품이 넓고 짧으나 기본형은 칼라가 있고 어깨가 꼭 맞으며 장식이 없는 단순한 형태이다.

또한 색상은 의복유형별로 현재 유행하는 색상과 유행을 따르지 않는 기본색상을 2차 전문가집단에게 자유응답으로 기술하도록 한 결과와 문헌조사 및 유행경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복유형별로 유행색과 기본색 1가지씩(정장 olive green/navy blue, 캐주얼 orange/beige)을 선정하였다. 예비조사결과로부터 상황과 의복유형 및 형태는 착용자의 인상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복색상은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캐주얼의 유행색상 기본색상에서 유행적측면의 지각에 차이가 없어 유행경향조사와 사전조사에서 얻어진 색상들 가운데 시장조사를 통해 남자들이 보다 쉽게 접할수 있는 보라색을 전문가집단(의생활학과 교수3명, 심리학과 교수2명)의 평가를 거쳐 캐주얼의 유행색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캐주얼의 바지색은 중간색인 회색으로 통제하였고 넥타이색상은 자극물의 의복색상과 동일하게 하여 넥타이효과를 통제하였다. 착용자의 연령은 응답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20대로 제한하였으며 착용자의 자세 얼굴표정 머리형태 및 배경은 일정하게 하였다.

2) 상황의 선정

선행연구들^{31), 32), 33)}의 결과와 함께 남자대학생(19명)에게 의복착용기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자유응답하도록 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복의 규범 또는 격식차림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2가지 사회적 상황이 선정되었다. 격식차린 상황에는 면접시험, 격식차리지 않은 상황에는 주말의 가벼운 외출(영화관람) 착용상황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상황의 조작은 설문지의 지

시문을 통하여 조작하였으며 자극물과 함께 제시되는 면접상황의 지시문은 '그림속의 남자는 20대로서 면접 시험에 가는 모습입니다'이며, 주말의 외출상황의 지시문은 '그림속의 남자는 20대로서 주말에 영화관에 가는 모습입니다'로 구성되었다.

실험디자인 : 피험자간(between-subject) 2인인설계로 16개 자극물별로 연령에 따른 두 집단이 모두 포함 되도록 하였고 응답자수는 연령집단별로 16명씩 무작위로 배치하였다.

3) 의미미분척도

자극물속의 의복착용자에 대한 응답자의 인상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는 등간형 7점척도로 문헌조사와 사전조사 및 예비조사를 통하여 개발되었다.

선행연구들^{14), 15), 20), 24)}에서 사용된 의미미분척도와 남자의복착용자의 인상을 표현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형용사쌍을 남·녀 대학생(40명)을 대상으로 자유응답으로 기술하도록 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50개 형용사쌍을 선택하였다. 전문가집단(의생활학과 대학원생 14명)의 평가에 따라 의복착용자의 인상을 표현하기에 부적절한 형용사쌍(4개)을 제외한 46개의 형용사쌍을 수집하였다. 예비조사결과 2개 이상의 요인성격을 띠는, 요인의 내용과 일치되지 않는것, 낮은 커뮤니티(communality), 다른 형용사쌍과 유사한 것은 본조사에서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35개의 형용사쌍으로 축소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자대학생 256명과 중년의 직장남성 256명으로 총512명이다.

자료수집은 1992년 1월에 이루어졌고 자료수집방법은 실험디자인에 의하여 유통화된 입의표집에 의하였다.

직장남성의 연령은 인사를 담당할 수 있는 40~50대이며 직업은 화이트 칼라에 해당되는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으로 한정되었다. 대학생은 취업시기에 가까운 3·4학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방법으로 의미미분척도 결과는 요인분석하였고, 가설검정은 변량분석과 보조적으로 MCA(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수준안에서의 차이검정은 일원변량분석과 던컨의 다중비교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 하였다.

IV. 결 과

1. 남자 의복착용자 인상의 요인도출

가설검정 및 부가적 관심의 규명에 앞서 의미미분척도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요인분석하였다.

요인도출 : <표 2>와 같이 응답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3개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I은 평가요인으로 25.7%의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품위에 관련된 특성(품위있다-품위없다, 점잖다-점잖지못하다등) 호오-확진평가특성(보기좋다-보기싫다, 인상이 좋다-인상이 좋지않다, 호감이간다-호감이 가지않는다등) 지성적평가특성(지성적이지 못하다-지성적이다. 전문적이지 못하다-전문적이다등)으로 구성되었다. 요인II는 활동성요인으로 17.3%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행동특성(활동적이다-비활동적이다, 정적이다-동적이다)과 태도특성(권위적이다-권위적이지 않다, 융통성없다-융통성있다)이 함께 묶였다. 요인III은 독특성요인으로 명명되었고 5.4%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행동특성(눈에 띄지않는다-눈에 띈다, 남들과다르다-남들과비슷하다)과 성격특성(외향적이다-내향적이다, 소심하다-대담하다등)이 함께 도출되었다.

한편 두개 이상의 요인특성을 갖는 형용사쌍(적극적이다-소극적이다, 촌스럽다-세련됐다, 매력있다-매력없다, 사교적이다-사교적이지 않다, 멋있다-멋없다)들은 이후의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요인점수의 계산 : 가설검정에 사용된 요인점수는 요인분석결과에 따른 회귀모델(regression model)점수계산법을 사용하였다. 요인점수에 따른 결과해석은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평가요인에서는 보다 품위있고 호감이가고 지성적인 사람으로, 활동성요인에서는 보다 활동적이고 권위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독특성요인에서는 보다 눈에 띄고 외향적인 사람으로 지각됨을 의미한다.

2.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상황 및 의복단서의 영향

<가설 1>의 검정을 위하여 요인분석결과 얻어진 3개 요인 각각에 대하여 상황 및 의복단서를 포함한 4원 변량분석과 MCA(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인들의 단독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는 MCA의 Eta계수 자승값(각 실험조작에 의한 변량/총 변량)으로 하였고 독립변인의 수준에 따른 비교는 평균값의 차 ($Y_{j.} - Y_{..}$)에 의해 해석하였다. 변량분석결과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경우는 도식에 의해 해석하였으며 각 변인의 수준에 따른 차이는 일원변량분석과 던컨의 다중비교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따라 해석하였다.

〈표3〉은 착용자의 인상에 미친 상황 및 3개 의복단서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의복색상을 제외한 3개 변인(상황, 의복유형 및 형태)은 주효과가 나타나 3개 요인 모두의 인상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 그중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이 큰것은 Eta계수로 비교해 볼 때 평가요인과 독특성요인에는 의복형태, 활동성요인에는 의복유형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는 상황과 의복유형은 3개 인상이나 모두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고 의복유형과 형태는 독특성요인에 유형과 색상은 활동성요인에 형태와 색상은 평가요인에 유의적으로 나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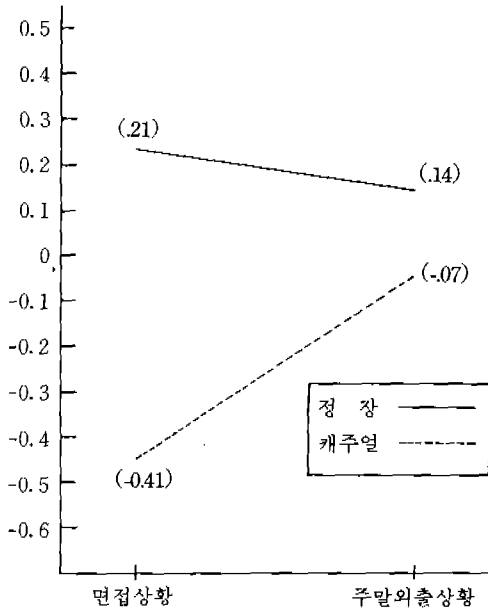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독립변인의 수준에 따른 인상을 비교해보면 상황은 평가요인을 제외하고 면접시험의 의복착용자에게 더 활동적이고 독특한 인상을 주었고 의복유형은 캐주얼의 경우 더 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 의복형태의 경우 기본형은 비활동적이며 독특하지 않은 인상을 주었고 그러나 평가요인에서는 기본형이 더 긍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주었다.

한편 유의적인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면 평가요인에서 상황과 의복유형의 상호작용은 〈그림 1〉과 같이 정장은 상황과 관계없이 긍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주었으나 캐주얼은 면접시험때 특히 부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주었다($F=10.43$ $p<.001$). 의복형태와 색상의 상호작용효과는 기본형은 색상에 따른 차이가 없이 긍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주었으나 유행형은 색상에 따른 차이를 보여 기본색의 경우 더 부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주었다($F=13.30$ $p<.001$) 활동성요인의 경우 상황과 의복유형의

〈표 2〉 의복착용자로부터 도출된 인상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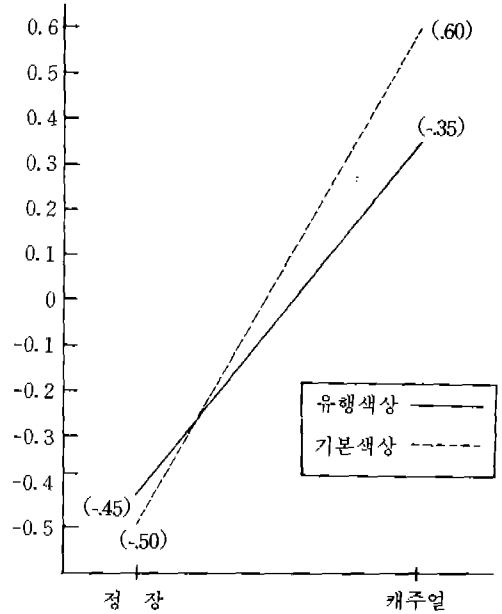
요인I : 평가요인		요인II : 활동성요인		요인III : 독특성요인	
형 용 사	부하치	형 용 사	부하치	형 용 사	부하치
품위없다-품위있다	.793	활동적이다-비활동적이다	-.719	눈에 띄지 않는다-눈에 띈다	.756
지성적이지 못하다-지성적이다	.783	권위적이다-권위적이지 않다	.678	남들과 다르다-남들과 비슷하다	-.627
보기싫다-보기좋다	.782	움통성없다-움통성 있다	.677	개성없다-개성있다	.595
인상이 좋지 않다-인상이 좋다	.767	정적이다-동적이다	.606	외향적이다-내향적이다	-.588
경박하다-신중하다	.730	형식적이다-형식적이지 않다	.587	소심하다-대담하다	.578
믿음직하지 못하다-믿음직하다	.717			보수적이다-진보적이다	.557
성실하지 않다-성실하다	.711			강하다-약하다	-.434
예의바르다-예의없다	-.695			우유부단하다-결단력 있다	.425
호감이 간다-호감이 가지 않는다	-.668				
점잖다-점잖지 못하다	-.667				
능력없다-능력있다	.644				
어울린다-어울리지 않는다	-.608				
충동적이다-자제력 있다	.560				
인기있다-인기없다	-.484				
사무적이지 못하다-사무적이다	.470				
전문적이지 못하다-전문적이다	.436				
남성적이다-여성적이다	-.379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	25.7%		17.3%		5.4%
총 설명력	48.4%				

평가요인 점수



〈그림 1〉 평가요인의 인상에 대한 상황과 의복유형의 상호작용효과: 전체응답자

활동성요인 점수



〈그림 2〉 활동성요인의 인상에 대한 의복유형과 색상의 상호작용효과: 전체응답자

〈표 3〉 상황 및 의복단서가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전체응답자^a

N=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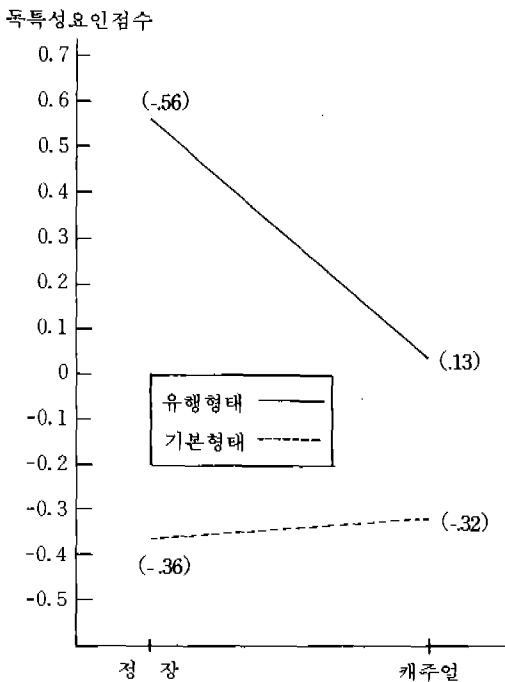
분석 방법	요인		평가요인		활동성요인		독특성요인		
	독립변인	수준	평균값차	ETA계수	평균값차	ETA계수	평균값차	ETA계수	
4원 변량분석	상황			5.86*		14.41***		8.48**	
	의복단서: 유형 형태 색상			16.14**		157.51***		5.61*	
					35.46***		9.89**		68.85***
					1.67		1.57		2.81
	상황×유형 유형×형태 유형×색상 형태×색상				11.74**		7.29*		3.89*
							3.98*		8.24**
					4.25*				
M C A	변인	수준	평균값차	ETA계수	평균값차	ETA계수	평균값차	ETA계수	
	상황: 면접 주말외출		-.11		.15		.13		
				.10		-.14		-.12	
	의복유형: 정장 캐주얼		.17		.10		.15		.12
				-.17		-.48		.47	
	의복유형: 유행형 기본형				.17		.48		.10
				-.25		.12		.34	
	의복색상: 유행색 기본색			.25		-.12		-.34	
			.06		.05		.07		.07
		-.06		.06		.05		.07	

* P<.05 ** P<.01 *** P<.001

a: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만을 제시하였음.

상호작용은 캐주얼에서는 상황에 따른 차이가없이 활동적으로 지각되었으나 정장은 주말외출때 특히 비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F=58.4 p<.001). 의복유형과 색상의 상호작용은 <그림 2>와 같이 정장의 경우 색상에 따른 차이가 적고 모두 비활동적으로 지각되었으나 캐주얼의 경우 기본색일때 더 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F=51.43 P<.001).

독특성요인의 경우 상황과 의복유형과의 상호작용에서는 면접시험 때는 유형에 따른 차이가 적고 어느정도 독특한 인상을 주었으나 주말외출때는 캐주얼을 착용했을때 독특하지 않은 인상을 주었다(F=5.22 p<.01). 의복유형과 형태의 상호작용은 <그림 3>과 같이 기본형은 유형과 관계없이 독특하지 않은 인상을 주었으나 유행형인 경우는 정장이 캐주얼보다 더 독특한 인상을 주었다(F=27.32 p<.001).



<그림 3> 독특성 요인의 인상에 대한 의복유형과 형태의 상호작용효과 : 전체응답자

이상의 결과에서 상황과 의복유형 및 형태는 모든 요인의 인상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색상은 평가요인에는 형태와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쳤고 활동성요인에는 의복유형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쳤으

나 독특성요인의 인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3. 응답자의 연령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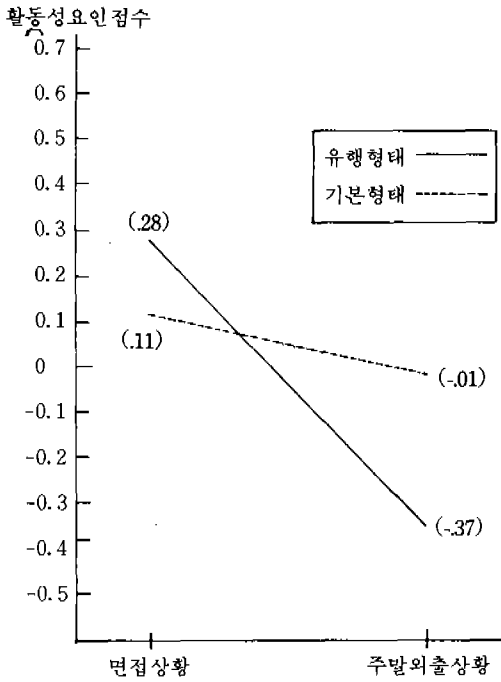
응답자의 연령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응답자를 연령에 따라 대학생집단과 중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각 집단별로 상황 및 의복 단서가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4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 연령의 영향은 변량분석결과로부터 독립변인의 영향을 비교함으로써 규명하였다.

남자대학생 : <표 4>와 같이 상황은 활동성과 독특성 요인의 인상, 의복유형은 평가요인과 활동성요인에, 의복형태는 인상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쳤고, 의복색상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이 큰 것은 평가요인의 경우 유형과 형태가 비슷하게 영향을 미쳤고 활동성요인에는 의복유형, 독특성요인에는 형태의 영향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는 상황과 의복유형은 독특성요인의 인상에 상황과 색상 및 유형과 색상은 활동성요인의 인상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독립변인의 수준에 따른 인상을 비교하면 면접시험때 의복착용자는 활동적이고 독특한 인상을 주었고 정장은 긍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주었으나 비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 유행형은 부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주었으나 활동적이며 독특한것으로 지각되었다.

유의적인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면 활동성요인에서 상황과 색상의 상호작용은 <그림 4>와같이 면접시험 때는 두 색상의 의복착용자 모두 활동적으로 지각되었으나 유행색이 좀 더 활동적으로 지각되었고 주말외출 때는 유행색 의복착용자의 경우 비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F=4.07 p<.01). 한편 의복유형과 색상의 상호작용은 정장인 경우 기본색이 더 비활동적으로 지각되었고 캐주얼은 두 색상 모두 활동적으로 지각되었으며 특히 기본색인 경우 더 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F=34.78 p<.001)

독특성요인에서 상황과 의복유형의 상호작용효과는 면접시험 때는 유형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말 외출 때는 유형에 따른 인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캐주얼을 착용한 경우 특히 독특하지 않은 인



〈그림 4〉 활동성요인의 인식에 대한 상황과 의복색상의 상호작용효과: 대학생 집단

상을 주었다($F=4.93 P<.01$)

중년 남자: 〈표 5〉와 같이 상황은 평가요인에 의복 유형은 평가요인과 활동성요인에 의복형태는 3개요인 모두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의복색상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중 착용자의 인식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은 평가요인에 의복형태, 활동성요인에 의복유형, 독특성요인에 의복형태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는 의복유형과 관련된 5개가 나타났다 그중 평가요인에 3개로 가장 많았다.

독립변인의 수준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면 평가요인에서는 주말외출상황, 정장, 기본형태가 긍정적인 평가적인상을 독특성요인에서는 유행형태가 더 독특한 인상을 주었다.

유의적인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면 평가요인의 경우 의복유형이 상황, 형태, 색상과 상호작용하여 평가요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상황과 유형의 상호작용에서 정장은 상황에 따른 차이가 없으나 캐주얼은 큰 차이를 보여 면접상황에서 캐주얼착용은 극히 부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주었다($F=5.74 P<.001$). 의복유형과 형태의 상호작용은 〈그림 5〉와 같이 기본형인 경우 정장은 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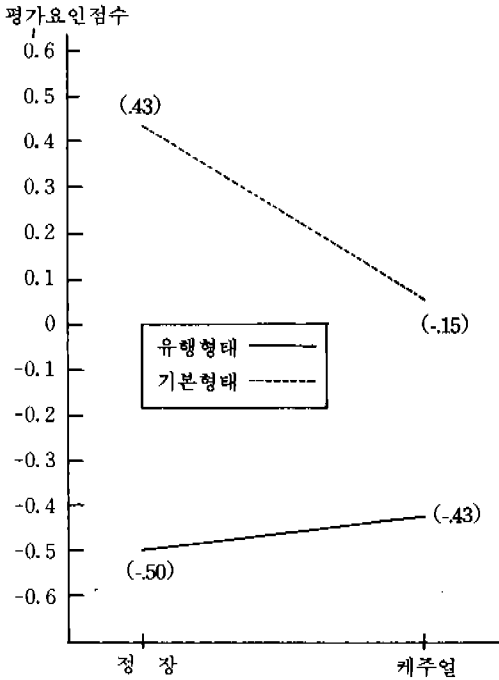
〈표 4〉 대학생 집단에서 의복착용자의 인식에 미치는 상황 및 의복단서의 영향^a

N=256

분석 방법	독립변인	요인		평가요인		활동성요인		독특성요인	
		수준	평균값차	ETA계수	평균값차	ETA계수	평균값차	ETA계수	
4인 변량분석	상황			1.14*		11.95***		10.37**	
	의복단서: 유형 형태 색상			12.97***		107.68***		2.94	
				13.11***		4.8*		40.85***	
				2.58		.66		2.94	
	상황×유형					5.76*		3.93*	
상황×색상					5.25*				
	유형×색상								
M C A	변인	수준	평균값차	ETA계수	평균값차	ETA계수	평균값차	ETA계수	
	상황: 면접 주말외출		-.06		.20		.20		
			.06		-.20		-.19		
				.06		.17		.18	
	의복유형: 정장 캐주얼		.20		-.59		.11		
			-.20		.60		-.11		
				.21		.53		.10	
	의복유형: 유행형 기본형		-.20		.12		.39		
			.20		-.12		-.39		
				.21		.11		.36	
의복색상: 유행색 기본색		.09		-.05		.10			
		-.09		.05		-.10			
			.10		.04		.10		

* $P<.05$ ** $P<.01$ *** $P<.001$

a: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만을 제시하였음.



〈그림 5〉 평가요인의 인상 에 대한 의복유형과 형태의 상호작용효과: 중년집단

적인 인상을 주었으나 캐주얼인 경우는 부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주었다. 유행형은 의복유형에 관계없이 기본형 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주었다($F=11.56$ $P<.001$).

의복유형과 색상의 상호작용은 〈그림 6〉과 같이 기본 색은 정장인 경우 다소 긍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받았으나 캐주얼인 경우 강한 부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받았다. 또한 유행색은 유형에 관계없이 일관성있게 부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받았다($F=2.66$, $P<.05$) 활동성 요인의 경우 상황과 의복유형의 상호작용은 캐주얼의 경우 두 상황에서 활동적으로 지각되었으며 주말의출에서 다소 더 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 정장은 두상황에서 비활동적인 인상을 주었으나 특히 주말의출에서는 극히 비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F=22.43$ $p<.001$) 독특성 요인의 경우 의복유형과 형태의 상호작용은 정장의 경우 형태에 따른 인상의 차이가 많아 기본형태는 독특하지 못한 인상을 주었으나 유행형은 극히 독특한 인상을 주었고 한편 캐주얼은 형태에 따른 차이가 적고 유행형이 다소 독특한 인상을 주었다($F=16.72$, $p<.001$).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인상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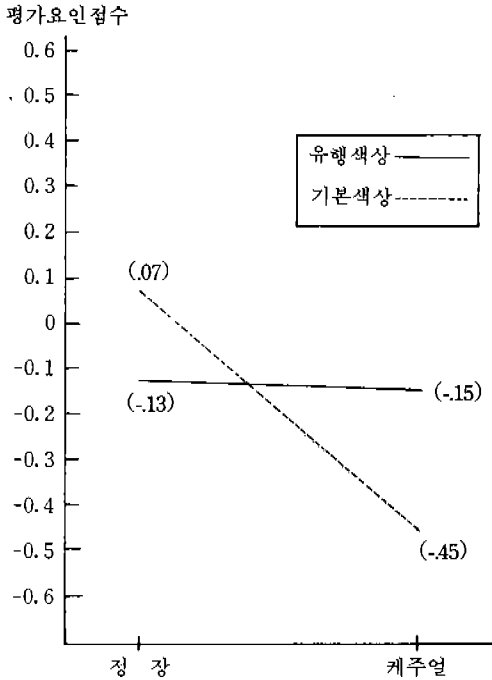
〈표 5〉 중년집단에서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상황 및 의복 단서의 영향

N=256

분석 방법	요 인	평 가 요 인		활 동 성 요 인		독 특 성 요 인		
		F 값		F 값		F 값		
4원 변량분석	상황	5.75*		3.46		.66		
	의복단서: 유형	4.54*		54.79***		2.98*		
	형태	23.84***		5.97**		30.05***		
	색상	.16		1.05		.27		
	상황×유형	9.30**		8.24**				
	유형×형태 유형×색상	7.53** 3.90*				16.43***		
변인	수준	평균값차	ETA계수	평균값차	ETA계수	평균값차	ETA계수	
	M	상황: 면접주말의출	-.16		.09		.05	
		주말의출	.15		-.09		-.05	
	C			.15		.11		.06
		의복유형: 정장	.14		-.36		.09	
	A	캐주얼	-.13		.35		-.09	
				.13		.42		.10
		의복유형: 유행형	-.30		.12		.29	
		기본형	.30		-.13		-.30	
				.29		.15		.32
		의복색상: 유행색	.03		-.05		.03	
		기본색	-.03		.06		-.03	
			.03		.06		.03	

* $P<.05$ ** $P<.01$ *** $P<.001$

a: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만을 제시하였음.



〈그림 6〉 평가요인의 인상에 대한 의복유형과 색상에 상호작용효과 : 중년집단

연령별로 4원변량분석한 결과를 비교, 요약한 것은 〈표 6〉과 같다. 독립변인의 영향은 대학생집단 10개 중년 집단 11개가 나타났고 특히 중년집단은 평가요인에, 대학생집단은 활동성요인에서 더 많은 영향이 나타났다.

또한 상황과 의복단서(유형, 형태, 색상)는 응답자의 연령이나 인상요인에 따라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으나 의복형태는 두 연령집단 모두에서 모든요인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서로 나타났다.

중년집단의 경우 의복유형이 다른 단서들과 상호작용하여 인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평가요인에서 중요한 의복단서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집단의 경우 의복색상이 활동성요인에서 상황 및 유형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쳐 활동성요인의 인상에 다소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상황 및 의복단서가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가설 2〉는 긍정되었다.

〈표 6〉 독립변인(상황 및 의복단서)과 응답자 연령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의 요약

요인	응답자구분		연령구분	
	독립변인	대학생	중년	
평가요인	상황 의복: 유형 형태 색상	*** ***	*	*
	상호작용효과		상황×유형** 유형×형태** 유형×색상*	
활동성요인	상황 의복: 유형 형태 색상	** *** *		*** *
	상호작용효과		상황×색상* 유형×색상*	상황×유형**
독특성요인	상황 의복: 유형 형태 색상		***	***
	상호작용효과	상황×유형*		유형×형태***
계		10개	11개	

* P<.05 ** P<.01 *** P<.001

V. 논 의

본 연구의 연구문제로 설정되었던 가설을 검정한 결과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복착용자의 인상구성

두가지 상황에서 남자 의복착용자의 인상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이 3개의 인상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1은 평가요인으로 25.7%의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품위와 관련된 특성, 호오-화친평가특성, 지성적 평가특성이 포함되었다. 요인2는 활동성요인으로 17.3%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개인의 행동특성 및 태도특성이 함께 묶였다. 요인 3은 독특성요인으로 5.4%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개인의 행동특성과 성격특성이 함께 묶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평가요인이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이는 인상차원중에서 평가적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선행연구결과^{24), 26), 28)}들과 일치된 것이며 또한 평가적 인상차원이 4가지 구조로 나뉘어 각각 몇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된 것은 인간이 지닌 내부특성들간에는 상호연관성이 있으며 한 개인이 다

른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때 특성들간의 상호연관성의 맥락에서 평가하게 된다는 내현성격체계에 의하여 초래된 결과로 풀이된다.

본 연구에서는 능력요인이 도출되지않았다. 이와같은 결과는 대인지각시 기본적인 인상차원은 평가 능력 활동성요인으로 구성되었다는 주장²⁶⁾, 비언어적인 단서는 역능차원의 인상을 형성하게 하며³⁴⁾ 의복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범주가 역능이라는 주장²⁵⁾, 그리고 남자들은 타인지각시 능력이나 활동성에 더 주위를 기울여 능력차원으로 타인을 평가한다는 주장³⁰⁾등과는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측정도구 개발과정에서 능력요인에 해당되는 많은 형용사상들이 남자 의복착용자의 인상표현에 부적합 한것으로 판정되어 척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주로 여자 의복착용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는 자극물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능력요인이 나타나지 않고 평가요인이 비대해진 현상은 문화적인 차이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서양은 개인주의적인 사고체계를 가져 맥락에 관계없이 일관성있게 나타나는 개인의 특성들에 관심을 가지므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각의 형태가 기질적 속성(성격특성, 능력)과 행동에 관한 것이나 동양에서는 맥락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회적상황과 대인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묘사가 더 자주 나타나는 결과, 능력요인보다는 평가요인이 강조되어 나타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 상황과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3개 인상요인(평가, 활동성, 독특성)에 상황, 의복유형, 형태가 영향을 미쳐 상황과 의복단서는 착용자의 인상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황보다는 의복단서(의복유형, 형태, 색상)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유형과 형태의 영향력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 의복착용자를 대상으로한 선행연구들^{23), 24)}에서 의복유형이 착용자의 인상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과 불일치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결과는 남성의복은 유형이 여성보다 다양하지 못하며 또한 의복형태의 변화가 거의없이 고정되어 있어 유행성차원으로 조작된 의복형태(유행형/기본형)는 두드러지게 지각되어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러단서중에 특히 인상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단서들은 그 영향력이 인상요인에 따라 달라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극물로 제시된 여러 의복단서들 중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단서가 존재하여 이러한 중시되는 단서의 영향력은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Asch⁵⁾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상황 : 상황은 의복유형과 상호작용하여 세 인상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동일한 의복착용자도 상황에따라 인상이 변화되고 특히 어떤 의복유형을 착용했는지가 지각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복유형 : 정장은 상황과 관계없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독특하나 비활동적인 인상을 주었다. 정장이 두 상황 모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Bell¹²⁾의 연구에서 포말한 남자 의복착용자는 매력적이며 지적이고 인기 있는 것으로 지각된 것과 일치하며 또한 여성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11), 15)}에서 포말한 의복착용자는 행복하고 성공적이며 여성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며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와 일치된 것으로 착용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포말한 의복착용자는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캐주얼은 상황과 관계없이 활동적이나 특히 기본색일때 더 활동적인 인상을 주었고 면접시힘 때는 부정적인 평가적인상을, 주말외출때는 특히 기본형일 경우 독특하지 않은 인상을 주었다.

따라서 캐주얼은 활동적인 의복으로 격식차린 상황에는 부적절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볼수있고 한편 격식차리지 않은 상황에서 독특하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것은 의복착용자가 20대로서 캐주얼은 이들이 자주 착용하는 의복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의복형태 : 기본형태는 색상과 관계없이 긍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주었고 유행형태는 특히 기본색의 경우 부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주며 독특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는 보수적인 의복은 진실하고 신뢰성있는 인상¹⁵⁾, 점잖은 의복은 호감이 가며 친절하고 따뜻한 인상을¹⁶⁾ 준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을 지지하는 한편 유행하는 의복착용자는 개인주의적이며 신뢰성없고 성실하지 못하다는 결과¹⁵⁾와 전문적이지가 약하다¹⁶⁾는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캐주얼보다 격식차린 정장착용을 더 좋게 평가하여 유행형의 의복에 대해서는 경직된 태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에 양복의 착용이 일반화된 것이 오래되지 않으며 특히 남성의복의 색상이나 스타일에서

다양화되는 현상은 근래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이 점차로 서구화되고 있으나 남성들의 유행의복 착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여자 최신유행형 정장은 면접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때 착용자의 성별에 따른 최신유행형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의복색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며 다른 단서와 상호작용하여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착용자의 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으나 능가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선행연구들^{20), 21)}과도 일치되는 것이다.

3) 응답자의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상황, 의복단서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대학생집단보다 중년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특히 중년집단은 평가요인에, 대학생 집단의 활동성요인의 인상에 좀 더 영향을 미쳤다.

대학생 집단 : 활동성요인의 인상에 색상의 영향이 나타나 중년집단보다 의복색에 좀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색상은 상황 및 유형과 상호작용하여 면접에서 또 정장에서 유행색상은 더 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 따라서 대학생 집단은 유행하는 색상을 좀더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복형태는 연령의 차이없이 두집단에서 3개 인상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유행형태는 부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주었다. 이는 의복형태가 갖는 지각적 특출성(salience)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최신유행형은 두드러진 의복단서로 인상형성에 작용한다는 강혜원³³⁾의 주장과 일치한다.

중년집단 : 대학생집단보다 상황 의복단서를 인상형성시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복을 지위나 신분상징의 도구로 여긴다는 Alexander의 연구³⁵⁾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평가요인의 경우 의복유형이 상황, 의복형태, 색상과 상호작용하여 특히 면접에는 정장, 기본형태, 기본색상에서 긍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집단이 대학생집단보다 상황에 따른 의복규범을 더 인식하며 특히 면접상황의 의복차별에 대하여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상황과 유형의 상호작용이 2개요인(평가, 활동성)의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대학생집단보다 더욱 맥락에 의존하여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양은 개인주의적인 서양과는 다르게 집합주의적인 사고체계를 취하여 개인의 행동은 상황, 시간 개인의 내적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여긴다. 따라서 동양인은 맥락에 의존한 지각의 형태를 취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맥락적인 지각의 형태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VI.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임의표집에 의해 피험자를 대학생은 고학년(3·4학년) 중년층은 화이트칼라에 해당되는 직장남성으로 제한한 점, 둘째, 본 연구의 자극물로 사용된 의복은 정장과 캐주얼만을 사용하였고 다양한 의복의 속성중 의복의 형태와 색상만을 두가지 수준의 유행성차원으로 조작하였다는 점과 셋째, 상황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상황을 격식차림정도의 두가지 수준으로 조작하여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추리를 가능하게 하는 단서로 사용되며 특히 남자 의복착용자에 대한 인상에 상황과 의복단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인상의 차이를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남자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상황, 의복단서, 응답자의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응답자의 성별을 달리하거나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여 인상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인물의 효과를 포함하여 의복과 인물이 상호작용하여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과 또한 의복착용자를 다양한 연령층으로하여 착용자의 연령과 의복과의 상호작용을 검토해 봄이 요구된다.

셋째, 다양한 의복단서를 사용하여 연구함으로써 서로 다른 의복유형내에서 여러 의복단서에 의한 인상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네째, 상황을 달리 조작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의복단서가 갖는 의미를 밝히고 상황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기여하는 정보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1) Hastrof, A.H., Schneider, D.J. & Polefka, J., *Person Perception*,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1970).
- 2) Hurlock, E.B., *Developmental Psychology*.(4th ed.),New Delhi; Tata Mcgraw-Hill Publishing Co., Ltd. (1978)
- 3) Hilgard, E.R., Atkinson, R., & Atkinson, R.C., *Introduction to psychology*(7th ed), N.Y.; Harcourt Brace Javanovich. (1979)
- 4) 정양은, 심리학 통론, 서울; 법문사 (1983)
- 5) Asch, S.E.,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17, 108~126(1946)
- 6) Freedman, J.L., Sears, D.P. & Carlsmith, J.M., *Social Psychology*(2nd ed) N.Y.; Prentice-Hall Inc.(1981)
- 7) Schneider, D.J., Hastrof, A. & Ellworth, P.C., *Person Perception*(2nd ed.), Addison-Wesley Pub.Co.(1979)
- 8) 조금호, 대인지각 차원의 이원성에 관한 연구-호오성과 화친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1982)
- 9) Hout, T.F. Experimental measurement of clothing as a factor in some social ratings of selected American 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 324~328(1954)
- 10) Douty, H.I., Influence of a Clothing on Perception of Person, *Journal of Home economics*, 55(3), 197~202(1963)
- 11) Harris, M.B., James, J., Chavez, J., Fuller, M.L., Kerts., Massanari, C., Moor, C., Walsh, F., Clothing: Communication Complicance and Choic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88~97.(1983)
- 12) Bell, E.L., Adult's Perception of Male Garment Styl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0(1), 8~12(1991)
- 13) Hamid, P., Style of Dress as a Perceptual Cue in Impression Formatio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26, 904~906 (1968)
- 14) Sweat, S.J., Zentner, A.N., Female appearance presentation : Gender difference in Social attribution and Situational choic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2) 175~186 (1985)
- 15) Paek, S.L., Effect of Garment Style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 Trait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5(1), 10~16(1986).
- 16) Abbey, A., Gozzarelli, C., McLaughlin, K., & Harnish, R., The Effects of Clothing and Dyad Sex Composition on Perception of Sexual Intent: Do Women and Men Evaluate these Cues Differently ? ,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7, 108-126 (1987).
- 17) Conner, B.H., Peters, K. & Nagasawa, R.H., Person and Costume: Effects on The Formation of First Impression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1), 32~41 (1976).
- 18) Thurston, J.L., Lennon, S.J., & Clayton, R.V., Influence of Age, Body Type, Fashion, and Garment Type on Women's Professional Imag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9(2). 139-150(1990)
- 19) Winakor, G. & Navarro, R., Effect of Achro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 to Women's clothing styl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5(2), 40~48(1987)
- 20) 이주현,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1990)
- 21) 고애란, Suit색과 신체노출이 정숙성 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1990).
- 22) Santrock, J.W., *Life-Span Development*, Brown Pub., Co. (1983)
- 23) Damhorst, M.L., Meaning of Clothing Cues in Social Contex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3(2), 39-48 (1984-85)
- 24) 강혜원, 이주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의복의 의미, 한국의류학회지, 14(1), 31-43.(1990)
- 25) Damhorst, M.L., In a Search of a Common Thread :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ed Through Dres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1~12(1990)
- 26) Osgood, C., Suci, G.J., & Tannenbaum, P.H.,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III,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In Compton, N.H., Hall, O.A.(1972). *Foundation of Home Economics Research*, Minneapolis, Burgess Publishing Company, 279~281(1957)
- 27) Delong, M.L. & Larntz, K., Measuring Visual Response to Cloth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8, 281~293 (1980)
- 28) 박혜선, 의복에 대한 의미미분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89)
- 29) Markus, H., Self-Shemata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63~78(1977).

- 30) Zebrowitz, L.A., *Social Perception*, Pacific Grove : Brooks/cole Publishing Co.(1990).
- 31) 고애란, 성인남자의 의복행동과 강화통제 및 신체적 만족과의 연구 - 의복의 수용, 신분상징성, 만족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3)
- 32) Adams, A.E., *Clothing Acceptance for the Self and For Others and Adherence to Selected Clothing Norms as Related to Selected Aspects of Personality in a Sample of Black College Ma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 State Univ., (1972).
- 33) 강혜원, 고애란, 박은주,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제28집, 333~359(1988).
- 34) Krauss, R.M., Apple, W., Morency, N., Wenzel, C., & Winton, W., Verbal, Vocal, and Visual factors in judgements of another's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312~320(1981)
- 35) Alexander, O.N., *A Pilot Investigation of The Motives Underling the Desire to Feel Well-Dressed at Various Age Levels*, M.S., Thessis. Cornell Univ.(1961).